

가을을 맞은 화랑가가 본주하다. 가나아트센터가 개관 3주년 기념으로 평소 접하기 힘든 요절 작가들의 유작들을 선보이는 기획전을 준비했는가 하면, 부산에서는 2002년 아시아경가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사경전도 준비됐다. 또 고 이응노 화백의 작품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추상화 권과 우리 주변의 자연과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풍경전들도 다수 선보이고 있다.

가을 화랑가에 가면 사색과 성찰의 시간

요절작가전 · 금니사경전 · 추상화전 · 설치작품전 등 다양

■ 요절과 숙명의 작가전

가을이 시작되는 9월, 북한산 기슭 가나아트센터가 개관 3주년을 맞아 '요절과 숙명의 작가전'을 연다. 한국 근현대작가 가운데 아쉽게도 요절했거나 길지 않은 작품 활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작품을 남기고 간 이들을 기억하고자 기획된 특별전이다. 한국 최초의 모더니즘 작가 구본웅, 신화가 되어버린 이종섭 등 20세기 한국미술에 빛나는 성과를 남긴 이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02720-1020

■ 종학 스님 금니사경전

6년간 <화엄경> 80편 60만자를 금니로 사경한 '화엄경금니사경 전시회'가 20일부터 24일까지 부산국제문화센터 소전시실에서 열린다. 부산불교연합회 주최로 2002년 부산아시아

아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의 작품은 부산불교연합회 부회장 종학스님(법명사 주지)이 1995년부터 금니로 사경한 것이다. 0511867-0501

■ 박용일 풍경과 바림전

화가 박용일은 우리들에게 시간 혹은 바람의 궤적을 그림으로 이야기 한다. 그는 땅바닥에 아리자리 얹히고 싹켜 쓰러져버린, 이제는 한낱 쓰레기로 훑아내는 이파리를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확인한다. 도시 변두리의 풍경들을 그려낸 그의 작품에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우리네 삶의 풍경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17일까지 갤러리 상에서 열린다. 02730-0030

■ 김아영 산수화전

12일-10월 2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아트 사이드에서 열리는 '김아영 초대전'은 흔

히 보기 힘든 산수화전이다. 김씨가 그린 산과 들은 빼어난 아름다움과 유명한 전설이 깃들여 있는 산수가 아니다. 너무 우리 가까이 있어서 그 소중함을 잊어버린 뒷산의 풍습, 큰 산이 아니어서 자칫 초라하게 느껴지는 우리 주변의 산과 나무, 들과 꽃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담아낸다. 02725-1020

■ 노상균 설치작품전

지난 1999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대표로 참여하는 등 실험적인 작업으로 국내외 화단에 알려진 노상균씨의 전시회가 갤러리 현대에서 21일까지 열린다. '방향'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서 노씨는, 예쁜 색깔의 불상과 예수상 복제를 통해 생명의 영역까지를 복제하려는 인간의 허망한 욕망을 표현했다. 02734-6111



◊ '방향'을 주제로 한 노상균의 설치작품. 불상의 복제를 통해 생명의 영역까지를 복제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표현했다.

■ 60년대 이응노 추상화전

15일-10월 14일까지 열리는 '60년대 이응노 추상화전'은 이응노미술관이 개관 이후 세 번째로 선보이는 전시다. 이번 전시는 구상에서 벗어나 추상의 세계를 탐구한 이응노의 전환기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023217-5672

이은자 기자 eje@buddhaga.com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은 깨달음의 경지를 '사랑의 시'로 쉽게 표현함으로써 선(禪)의 인간화, 현대화, 대중화에 성공한 작품이다. '의심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구도의 과정을 '그리움에서 만남까지'의 시로 만들어서, 난해한 선의 세계를 누구나 읽기 쉬운 보편적 사랑의 언어로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이 소중한 글이 수감생활의 고독과 절망 속에서 잉태되었다는 사실은 이 시를 더욱 영롱한 보석처럼 돋보이게 한다.

이런 일련의 사실은 기독교 신비주의의 정상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성 요한의 시(詩) <영혼의 노래>를 상기시킨다. 16세기 스페인 출신의 이 신부는 그 영성의 깊이로 말미암아 1926년 교황 베오 11세에 의하여 '교회박사'라는 명칭을 부여받을 정도로, 카톨릭 역사상 신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간 인간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신비체험을 '사랑의 시'로 표현했는데, 묘하게도 그 내용이 <님의 침묵>과 너무도 흡사하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한다.

아아, 남이여, 어디로 가셨나니까? 나만 홀로 한숨 속에 남겨두고 내 가슴을 짚어 놓고 울적 떠나신 남 울부짚으며 따라 나섰건만 이미 가버린 뒤 (-)

한운은 '님의 침묵' (5)

깨달음의 소식 동-서양 초월 '증도가'로 표현

십자가의 성 요한은 부패하고 보수적인 당시 카톨릭 교회의 개혁을 시도한 인물이다. 완고한 카톨릭주의에 항거하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운동이 북유럽을 중심으로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던 시대상황을 의면하면 당시 보수종단에 대하여 체제 내의 개혁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젊은 수도사의 앞날에는 모든 개혁가가 걸었던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한밤중에 남치되어 어느 수도원 탑의 꼭대기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는 기느리란 헛발 한 줄기밖에 들어오지 않는 감방에서 온갖 열박과 회유, 채벌과 죽음의 위협 속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적인 '어두운 밤'에 처했을 때, 간절한 기도 속에서 신비로운 영적 깨달음을 체험한다. 그는 후에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하여, 피신처에서 자신의 영성 체험을 시로 남기는데, 그것이 <영혼의 노래>이다.

인간의 내밀한 종교적 체험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굳이 그것을 표현하자면 시작 언어를 빌리지 않을 수 없다. 동서고금의 모든 경전이 그 고리로서의 의미를 떠나 한 편의 장시로 읽힐 수 있는 것은 이 까닭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동서양을 초월하여 깨달음의 소식이 가끔 '사랑의 서정시'로 쓰여진다는 사실이다. 깨달음의 체험이 사랑의 언어를 빌린다는 것은 주관과 객관 등 모든 대립이 해소되어 완벽한 일치에 도달했다는 말이다. '사랑의 증도가'는 곧 '한 마음-一心의 노래'이다.

<영혼의 노래>는 기독교 영성 연구에서 고전의 반열에 오른 작품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운의 <님의 침묵>을 대장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결코 과장이 아닌 것 같다. ■문학평론가

영인 스님 '법화경' 독송 CD 27장에 담았다

"아무리 좋은 경전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를 되새기지 않으면 불자 자신에게 어떤 도움도 될 수 없습니다." 대승불교의 중요한 경전 가운데 하나인 <법화경> 28품을 완송해 총 27개의 CD에 담은 독송 앨범을 선보인 영인스님의 말이다. 스님은 특히 <법화경> 28품 전체를 한 글로 독송해 불자들의 이해를 한층 쉽게 했다. CD 27개를 모두 감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17시간 7분 18초다. 기존의 경전 독경 테이프에 비

하면 상당히 많은 분량이지만,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차분히 듣다 보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법화경>을 공부하는 불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스님은 <법화경>의 의미를 불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7년 전부터 <법화경>을 독송하고, 공부하며, 한글로 직접 번역까지 해가면서 준비를 해왔다. 지난 2월부터 기획제작사 부인에서 <법화경> 독송 제작에 들어가 6개월 여 간의 녹음 작업 끝에 이번 앨범을 내놓았다.

현재 경남 합천군의 한 토굴에서 수행중인 영인스님은 14세에 쌍계사 고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0대 때부터 고산스님으로부터 피를 흐르는 엄한 교육을 받으며 열반을 배웠다. 타고난 목정에 초등학교 때 수행선수로 활동해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으로 일찍이 고산스님으로부터 열반의 백을 이어갈 재목으로 인정받은 스님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정진해 <화엄경>도 한글로 독송해 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 <법화경>완송CD 펴낸 영인 스님.



◊ 과감한 여백 사용과 생략을 보여주는 수안 스님의 최근작.

수안 스님의 선화 '러시아 나들이'

선화가 수안스님이 3일-19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 로시조 국립박물관 전시관에서 작품전을 갖는다.

러시아에서 한국 스님의 그림 전시회가 열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안스님 그림 전람회'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최근 3년간 제작한 선화 80여점을 선보인다. 러시아 연방 문화부와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전시는, 한국 불교와 한국의 수묵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 부암동 산자락에 '아라가야 미술관' 개관

아이공연장 · 연색체험장 등 복합문화공간

서울 종로구 부암동 산 자락에 복합문화공간 '아라가야 미술관'이 20일 문을 연다. 천연염색가이자 한복디자이너인 불자 이나경씨가 설립한 아라가야 미술관은 총 750평의 규모로 미술관과 야외공연장, 야외전시장, 공예아트숍, 찻집, 연색 체험장 등으로 꾸며진다. 지난 3월부터 공사에 착수해 현

재 마무리 작업 중인 아라가야 미술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국민벤처펀드 투자기금으로 선정돼, 문화벤처의 전형을 보여줄 계획이다.

미술관에는 고유의 천연염색문화와 아라가야에서 생산 중인 천연염색 원단과 한복, 소품 등 각종 제품을 선보이고, 야외전시장에도 각종



◊ 종로 부암동에 20일 문을 여는 아라가야 미술관.

미술 전시회를 연다. 또 한지와 한, 금속공예 등 우리 전통문화를 아트를 융합한 전시 판매하고,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 생생한 우리 문화체험공간으로 꾸러나갈 계획이다. 또 야외공연장에는 한복 패션쇼를 겸한 야외음악회, 퍼포먼스 공연

등을 준비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씨는 "일반인들이 우리 문화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강좌를 마련하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우리의 고급문화를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2733-0442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400,000원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30,000원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20,000원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 x 262cm(길이)

수분흡수와 방습기능은 일반면의 5배, 무릎이나 피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삼베목수건은 식물성섬유와 동물성섬유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베특유의 사각사각한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 02-3270-3300 팩스: 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청 방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 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